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7
MAY 13 2022

발간년월 2022년 5월 13일(통권 제217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미국, 러시아 국적 7개 해운회사 운항금지
- 글로벌 해운업계, 잇단 러시아 보이콧 선언
- LNG 운반선이 북극 선박 탄소 배출량 1/4
- EU 제재로 Arctic LNG-2 건설 좌초 위기
- 러 철도청, 물류 문제 해법 마련 '절치부심'

주요 통계

-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03~12



주요 동향



미국, 러시아 국적 7개 해운회사 운항금지

그림. 러시아 국적 선사 소유 선박 항해 모습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5493/>

■ 미국 재무부 및 국무부, 러시아 국적 7개 선사 제재

-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선사 및 6개의 러시아 국적 선사에 제재조치를 부과하였고, 제재대상 목록에 러시아의 사법권이 미치는 69개 선박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힘
- 해당 제재 조치 결과로 △아바론로지스티카(Oboronlogistika), △Sk Yug, △북부 해운선사, △트랜스모르플로트(Transmorflot), △엠-리스(M-Lease), △마린트랜스쉬핑(Marine Trans Shipping) 社를 비롯해 △노스 프로젝트(North Project) 운송회사 등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음
-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사 가운데, 북부 해운선사와 트랜스모르플로트(Transmorflot)의 경우 각각 27척, 15척의 선박이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러시아는 해상 운송에 큰 리스크에 봉착한 것으로 보임

■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양 개발 회사도 제재

- 러시아 국적 7개 선사 제재에 이어 미 재무부는 러시아 LLC Fertoing社를 제재대상으로 선정, 제재목록에 포함시켰음
- 해당 기업은 최신식 기술을 접목한 첨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 해양탐사, △항해·수문학 및 해저기술, △해저 자원 채굴 단지·해양 및 하천 설비·파이프라인 수송 설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임
- 특히, 미 해양 전문지 The Maritime Executive에 따르면, LLC Fertoing社는 러시아 최초로 북극 해양유전 '프리라즐롬나야(Prirazlomnaya)' 석유 시추 플랫폼 건설과 사베타 항만 건설 사업 등 러시아 정부 주도의 대형 해양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한 바, 러시아 정부와 국영 기업과 협업해 온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음
- 러시아 해양 첨단기술산업의 선두에 선 LLC Fertoing社가 제재기업 목록에 포함되며, 현재 시점에서 미국 기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과거 이미 러시아 국영 해운사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러시아 통합 조선 공사(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95493/> (2022.5.11. 검색)

b)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u-s-sanctions-seven-more-russian-shipping-companies> (2022.5.11. 검색)

글로벌 해운업계, 잇단 러시아 보이콧 선언

그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브론카(Bronka) 터미널



자료: <http://www.morvesti.ru/analitika/1685/95363/>

■ 세계 최대 해운사, 러시아 화물운송 중단^{a)}

- 러시아행 화물운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해운 머스크(Maersk), 스위스·이탈리아 해운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그리고, 프랑스 해운회사 CMA CGM는 러시아 화물 선적 예약을 일시 중지하기로 발표했음
- 이탈리아 일본 해운 ONE(Ocean Network Express), 독일 해운 하팍로이드(Hapag-Lloyd), 대만 해운 양밍(Yang Ming)사(社), 미국 선사 쉽코(Shipco), 한국 해운 HMM 등 해운사들도 러시아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음
- 올해 3월 1일 머스크(Maersk)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행 및 러시아발 모든 컨테이너 운송의 새로운 주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초기에 머스크 사는 식료품·의약품 및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에 대한 금지가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칼리닌그라드항, 노보로시스크항을 목적지로 하는 생활 필수품에 대한 새로운 주문 접수를 잠정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MSC사는 발트해와 아조프-흑해, 극동 등 모든 분지에서 러시아에 대한 화물 예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CMA CGM사도 러시아 화물 예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이러한 해운사의 러시아 보이콧 선언으로 러시아 주요 물류 공급사슬의 단절을 초래했음
- 러시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컨테이너 중 약 30만 TEU 이상이 러시아에 운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러시아 보이콧으로 인해 러시아산 수입품의 50%와 수출품의 60%가 막힌 상황임

표. 10대 글로벌 해운사별 선복량 및 점유율

회사명	선복량(백만 TEU)	글로벌 시장 점유율
MSC	4,3	17%
Maersk	4,28	16,9%
CMA CGM	3,28	12,9%
COSCO	2,9	11,5%
Hapag-Lloyd	1,7	6,9%
ONE	1,5	6%
Evergreen Line	1,5	6%
HMM	0,8	3,2%
Yang Ming	0,7	2,6%
ZIM	0,4	1,7%

자료: alphaliner.axsmarine.com

■ 러시아 수출의 50~70%가 중단된 상태

- 러시아 정기용선 기업인 Sovfracht 사(社)의 드미트리 푸림(Dmitry Purim) 이사회 회장과 프랑스 물류회사 FM 로지스틱(FM Logisti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로 수출되는 화물의 경우 50~70%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 터미널 혼잡으로 화주의 화물 초과 보관료도 늘어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러시아 물품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재를 가했으나,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에서 수출입품의 금지목록을 확대해 맞조치를 내렸음

■ 러, 극동 철도 등으로 물류애로 타개 추진

- 세계 해운회사의 보이콧으로 러시아에서는 극동 철도를 통한 화물 육상운송의 발전에 대한 주제가 다시 떠올랐는데, 문제는 철송은 교통혼잡이 극심하며, 상대적으로 처리능력이 낮다

는 점임

-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 화물 운송업자를 통합하는 유라시아철도화물운송업자연합은 러시아 철도망이 가진 처리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러시아연방 정부에 제의할 예정임
- 이 연합은 수입 화물에 대한 우선 카자흐스탄, 중국 및 몽골의 육상 국경 통로와 러시아 극동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에 절대적이며, 제한이 없는 우선순위를 철도에 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음
- 러시아 화물 운송업자의 경우는 앞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주문 및 환적량 감소, 운송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은 더 많은 현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함
- 그러나, 러시아, 중국 등은 현재 글로벌 해상운송의 빈 틈새를 중국, 러시아 및 타 국가 운송업체가 채울 수 있고, 해상운송 화물 일부를 내륙운송을 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 컨테이너 운송시장 전망 불가’

- 프랑스 물류 회사 FM로지스틱(FM Logistic)의 러시아 지부의 복합운송 사업 담당자는 현재로는 러시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 대한 전망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힘
- FM로지스틱 담당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출처에서 나온 정보는 매일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월 7일~13일에 일본 오션네트워킹익스프레스(ONE)사는 러시아 극동 항구에 향하는 화물 예약을 받겠다고 했고, 스위스 해운 MSC사도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3월 11일에 그 정보는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설명했다.
- 또한 담당자는 한국 장금상선(Sinocor)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선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선사 페스코(FESCO)와 사스코(SASCO)는 러시아 극동 항만에 대한 수입 화물을 받고 있음. 또한, 중국 피더(지선)운송 선사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가는 해운서비스를 계속하고 제공하고 있고, 터키 피더 운송 선사는 노보로시스크항에 대한 선적을 하고 있으며, 유니피더(Unifeeder)사와 같은 유럽 피더선사 일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소량의 화물을 유럽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항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향후 글로벌 운송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담당자는 최근에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철도 운송 운임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러시아향 물동량이 증가되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에서 러시아향 화물운송 운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 항구를 통한 컨테이너 화

물의 복합운송 비용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예고로프 아르쎀 러시아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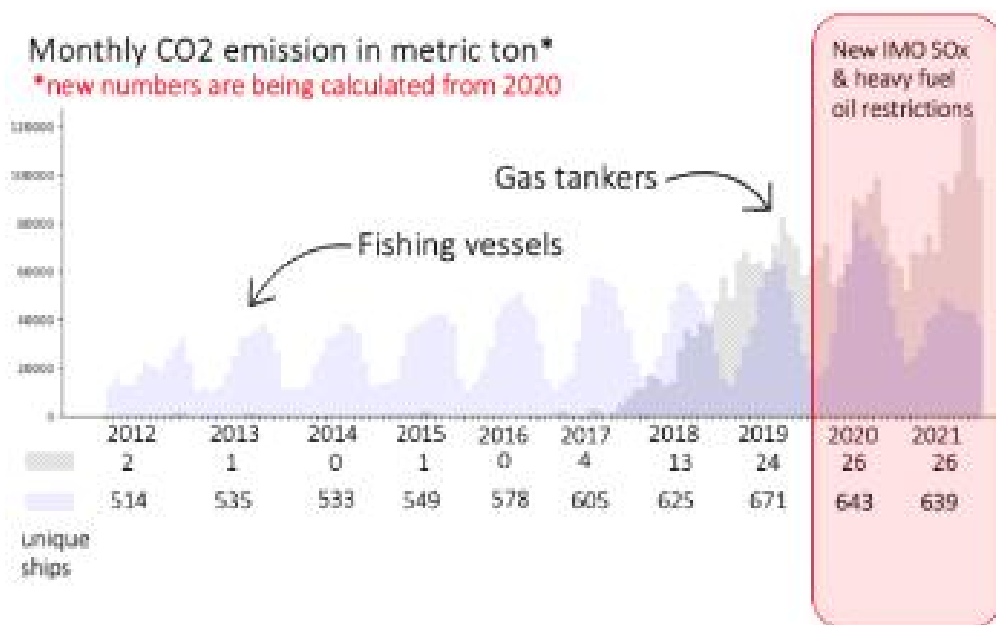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LNG 운반선이 북극 선박 탄소 배출량 1/4

■ 북극해 항로에 항행하는 LNG 운반선 전체 CO2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

-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LNG 운반선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새로운 분석이 등장
- 북극 지역 선박 교통은 2019년 2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LNG 운반선의 경우 78만 8천 톤(약 28%)
- NTNU 해양 기술학부 부교수 Ekaterina Kim에 따르면, 북극항로를 오가는 어선의 수가 LNG 운반선보다 훨씬 많지만, 북극에서 선박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가운데, 거의 30%가 유조선에서 발생한다고 밝힘
- 또한 북극 운항 LNG 운반선은 2017년 이후 4척에서 26척으로 증가한 것도 북극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월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lng-carriers-account-for-a-quarter-of-shipping-emissions-in-the-arctic>

■ 북극선박교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북극항로의 선박 운항은 크게 증가

-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중 하나인 PAME(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그

룹에서 수집한 북극선박교통정보(ASTD)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북극 지역을 지나는 선박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음을 밝힘

- PAME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극 선박이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선박이 극지 지역을 항해한 총거리는 1,070만 해리로 75% 증가했다고 함

■ 증가한 선박의 숫자는 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

- 선박이 커지거나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극해의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
- 새로운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이 선박 연료유에 허용되는 황 함유량을 줄임에 따라 일부 북극 지역에서 이산화황 수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개별 주에서 일부 규제를 면할 수 있는 여러 허점이 있음
- 대형 유조선이 현재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극에서의 오염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

■ 북극해 항로는 효율적 운송이 가능하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동기 부여 필요

- 북극해 항로는 기존의 항로의 지름길로 운송 시간도 최대 10~1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음
- 북극해 항로는 때로는 빙산에 의하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운송 시간 증가와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음
- 한 전문가(Ekaterina Kim)는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연료 소비와 그에 따른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행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선원들에게 더 친환경적 방식을 운영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다고 함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Ing-carriers-account-for-a-quarter-of-shipping-emissions-in-the-arctic> (2022.5.10.검색)

EU 제재로 Arctic LNG-2 건설 좌초 위기

■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EU 제재 압박 계속 증가

-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의 영향으로 LNG-2에 활용되는 중국의 프로젝트가 중단될 예정임
- 4월 8일부터 시작된 EU의 다섯 번째 경제 제재에 따라 유럽기업은 5월 27일까지 미결인도를 완료해야 함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는 EU 제재의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작업장을 떠나야 함

■ EU 제재조치로 LNG-2 프로젝트 중국 참여는 중단 예정

- 노바텍(Novatek) 주력 플랜트인 Arctic LNG-2의 모듈에서 건설 중인 중국 야드의 상당수가 5월 말까지 프로젝트 작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
- Upstream에 따르면 중국 야드에서 작업 중인 두 개의 라인 5월 27일까지 중단에 이를 것으로 발표
- 모듈 제조는 Bomesc,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 Penglai Jutal Offshore Engineering(PJOE), Wilson Offshore Engineering 및 Qingdao McDermott Wuchuan을 포함한 최소 6개 중국 야드에 걸쳐 있음

■ 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유럽 기업은 이미 철수 중

- EU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Total, Exxon Mobil, BP, Shell 및 Equinor를 포함하여 러시아 Arctic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에너지사들은 러시아 합작투자를 중단하거나 재정 상각 선택
- 일본 미쓰이도 프로젝트 지분 10%와 관련해 손실 입었다고 발표
- 이 프로젝트는 연간 66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3개의 생산 라인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열차는 약 85-95%의 완성도에 도달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라인은 현재 중국 야드에서 건설 중
- 발표된 작업 중단으로 인해 Arctic LNG-2는 계획대로 생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

■ Novatek이 대체 참여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 예상

- 프랑스 기업 Technip은 2019년 Arctic LNG-2 건설을 위해 76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나, EU 제재 체제를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 참여를 중지할 것이며, Novatek 또는 다른 파트너사에 주도권을 넘기는 방법을 모색 중
- Technip, Linde 및 Siemens와 같은 파트너사들은 모두 프로젝트에 중요한 건설, 공급 또는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었으며, Red Box Energy Services와 같은 유럽 기업도 중국에서 러시아로 모듈 운송계약을 체결했음
- Arctic LNG-2를 주도하는 Novatek은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하는 유럽기업을 대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 a) <https://www.highnorthnews.com/en/eu-sanctions-stop-construction-arctic-lng-2-modules-china> (2022.5.10.검색)

러 철도청, 물류 문제 해법 마련 ‘절치부심’

■ 제재 국면에 처한 러시아 물류업계가 당면한 위기와 대처 방안을 마련

- 러시아 철도청은 지난 3월에 개최된 "러시아 물류 제재의 결과 : 추정, 위험, 예측" 온라인 세미나 결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물류 전망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의 교역 증가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러시아 화물 운송업체 및 물류 조직 협회에 소속된 알렉산드르 치야즈니코프에 따르면, 현재 제재 압력으로 해상 운송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북서 지역 해상 운송량은 약 70%, 남부 지역 해상 운송량은 약 35~40%, 극동 지역은 약 10~15% 감소했음
- 지난 5년 동안 러시아 운송업체는 EU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며, 유럽 방면 물류 시장의 어려움을 체감했음
- 따라서 러시아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철도청과 같은 국영 기관도 제재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물류회사 STS Logistics의 블라디미르 도로호프 이사는 현재 국제 물류업계는 재정적 요소, 소프트웨어의 제한, 물류 계획의 파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물류업계는 아시아 물류 시장을 개척하는 등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rzd-partner.ru/auto/news/rost-tsen-na-benzin-v-2022-godu-mozhet-dostignut-9/\(2022. 5. 11. 검색\)](https://www.rzd-partner.ru/auto/news/rost-tsen-na-benzin-v-2022-godu-mozhet-dostignut-9/(2022. 5. 11. 검색))



주요 통계



표.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1.4(-1.3%)	6.8(+4.8%)	18.2	+0.9%
북극해	1.3(-12.9%)	6.3(+11.0%)	7.6	+4.3%
발트해	6.8(-11.3%)	11.8(+13.9%)	18.6	+2.3%
아조프-흑해	8.2(+2.9%)	10.5(+2.7%)	18.7	+0.3%
카스피해	0.2(-12.9%)	0.2(-44.6%)	0.4	-32.8%
합계	27.9(-5.5%)	64.4(+7.3%)	63.5	+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달러	kg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척추동물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4.11	27.91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2	0.06
		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98.52	54.26
		12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39.69	27.81
07	야채 식용 뿌리 베리류	10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1.98	10.79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3.01	1.56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8.9	1.03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1.66	1.46
08	식용 과일 견과류 감귤류	10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6.06	2.24
				05000 - 연해주	0.13	0.03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5.28	43.57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67	0.1
				05000 - 연해주	442.43	400.62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430.99	351.99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465.14
		12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1,130.26	915.2
				64000 - 사할린주	398.38	324.09
				05000 - 연해주	1,483.59	1,369.26
				30000 - 캄차트카변강주	316.47	182.56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카야주	3.93

	파라과이 차 향신료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32	0.17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2	1.6
				64000 - 사할린주	8.27	1.56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12	1.95
10	곡물	1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43.23	17.36
12	기타 과일 및 곡물 종자, 약용 식물 등			61000 - 라잔주	40.5	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418.87
				46000 - 모스크바주	181.51	9.04
			10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612.3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81.9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1.58	2.35
				64000 - 사할린주	8.43	0.2
				45000 - 모스크바시	1,165.84	62.8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590.02
				61000 - 라잔주	40.2	3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73.98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73.18
			11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86.76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81.86	11.87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74.96	4.26
				69000 - 톰스크주	88.14	4.5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44	0.1
				05000 - 연해주	72.78	4.47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464.84	26.13
		45000 - 모스크바시	1,407.38	80.37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570.31	32.1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199.54	10.47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96.93	4.79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1.75	1.9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56	19.11

*주: EAEU 코드 01~12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0.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달러	kg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척추동물	10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07.99	11.08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268.45	66.1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85,543.01	33,615.18
				44000 - 마가단주	25,413.61	3,317.3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7,271.18	4,973.25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412.17	116.36
				64000 - 사할린주	42,843.4	1,0322.56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5,196.76	15,373.68
		11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22,997.85	3,337.25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38,409.45	18,186.52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36,642.32	6,257.6
				05000 - 연해주	61,341.87	13,114.12
				64000 - 사할린주	32,227.72	11,738.05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580.53	144.45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11.14	11.04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311.88	76.73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59,929.48	20,221.04
				44000 - 마가단주	13,424.53	1,235.45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37,930.32	10,650.33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798.13	204.92

			05000 - 연해주	124,066.14	33,216.62
			64000 - 사할린주	35,249.81	14,671.86
04	우유제품, 계란 등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73
		12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5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78
05	타 지역산 동물성 제품 및 기타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
		1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0.5
		12	01-중앙연방관구	38000 - 쿠르스크주	0.5
				45000 - 모스크바시	0.02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0.02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1
07	야채 식용 뿌리 베리류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7.06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5.5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57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74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0.13
08	식용 과일 견과류 감귤류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
09	커피, 차, 마테차 파라과이 차 및 향신료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3.67
		12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0.9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14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7.65

10	곡물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54.24	968.1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745.28	1130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8,440.8	62300
		1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729.74	5,869.76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2,727.93	76,280.18
11	밀 및 곡물 제품, 맥아, 전문 글루텐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	8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48.5	100.32
		11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48	1.66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0.19	0.11
		1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7.75	19.44
12	기타 과일 및 곡물 종자, 약용 식물 등	1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336.58	1,575.8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5.43	13.82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148.18	1,450.8
		1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450.15	4,246.2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0. 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0. 검색))